세계 여성불자 한자리…"지혜 나누는 시간"

샤카디타 세계대회 6월 23일 개막
전세계 31개국서 3000여 명 동참
'깨어있는 지혜' 주제로 27일까지
본각 스님 "부처님 딸로 한가족"
진우 스님 "세계불교 축제" 기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전 세계 비구니 승가와 여성불자들의 축제,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6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열고 5일간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전 세계 여성수행자들의 대화합장인 이번 샤카디타 대회는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열린 것으로, 31개국에서 3000여 명이 동참했다.

개막식은 전국비구니차인회의 육법공양과 진관사 수륙재보존회의 신중작법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장내를 가득 메운 빨리어와 중국어, 티베트어, 베트남어, 한국어 등 각국의 염불은 샤카디타 대회가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임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시간이 됐다.

샤카디타 코리아 공동대표이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의 주제인 '깨어있기'를 강조했다. 본각 스님은 "그동안 위기의 시대에도 서로를 보살피고 배려하며 지금까지 여러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더욱 올바른 삶의 지침을 찾고 더 나아가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할 때"라면서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전쟁을 불러오며 갖가지 위기상황에 처하게 하지만 비움으로써 청정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샤론 A. 서(Sharon A.Suh) 샤카디타 세계여성불교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의 여성불자들이 모인 이번 대회는 우리의 통찰과 경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경이로운 순간"이라며 "샤카디타 대회를 통해 대체불가능한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대회 주제인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거듭 언급하며 "부처님 가르침과 명상을 바탕으로 세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의식 변화와 공유의 기회가 돼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대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가 한국 전통문화는 물론 각국의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세계에 알리는 세계불교문화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의 축제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격려도 이어졌다. 제18차 대회 증명인 명성 스님은 운문사 강주 진광 스님 대독한 격려사에서 "위기의 세상 속에 어떻게 깨어있는 수행자가 되고 어떤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을지 다함께 지혜를 모으자"면서 "인류의 스승 부처님의 진실한 아들, 딸이 되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현대사회 여성 불자의 역할과 함께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회는 6월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와 봉은사 일대에서 개최되며 학술, 문화, 공양, 체험의 장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현장 기사 차주 상보〉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 생애 면면을 조명하다

대행선연구원, '근 · 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 학술대회

근 · 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6월 17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근 · 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일엽 스님, 봉려관 스님을 비롯해 은영 스님, 인홍 스님, 대행 선사 등 근 · 현대 시기 한국 비구니계를 이끌었던 선지식들의 업적과 사상을 연구 · 조명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봉려관과 제주불교 지평의 확장'에서 근대 제주불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봉려관 스님의 사상을 조명했으며, '담연당 선경의 선사상-삶과 수행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여현 스님(동국대)은 유활문도회의 수장으로 수행에 매진한 담연당 선경 스님의 선사상을 살폈다.

김일엽문화재단 부이사장 경완 스님은 '김일엽 스님의 선사상 고찰'을 통해 근대 선각자인 일엽 스님의 수행자적 면모를 저작을 통해 되짚으며,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비구니 은영 스님의 생애와 보문종 창종의 의의'를 통해 비구니 종단인 보문종을 창종한 은영 스님의 삶과 사상을 살폈다.

'가지산 석남사 인홍 스님의 삶과 사상'을 발표한 동국대 강사 일중 스님은 현대 비구니 선지식 인홍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살폈으며, 윤종갑 동아대 초빙교수는 '대행선(大行禪)의 마음공부와 주인공 명상'을 통해 대행선 특징과 요체를 조명했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의 연구가 확대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혜수 스님은 "오늘 동국대 도량에서 훌륭한 법석을 열어 여섯 비구니 선사들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게 되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비구니의 일원으로서 문중을 떠나 한 승가의 사형 사제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학술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비구니 선사들의 연구가 발표되고 이어지기를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로 비구니 승가 연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연구하고 넓게 조망해 후속세대의 연구

근 · 현대 비구니 선지식 6인 조명
韓비구니 승가 연구 활성화 기대
제5회 묘공학술상 · 장학증서 수여

토대를 만들어주는 작업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토대를 기반으로 비구니 승가의 연구는 더욱 견고하고 활발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 역할을 대행선연구원에서 앞장서주시니 고맙고 든든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대행 선사 열반 10주년을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그 이후 한평생 수행자로 살다 간 비구니 스님들의 일생을 통해 수행자적 삶을 돌아보는 것도 아주 값진 일이라 생각돼 오늘의 기회를 만들었다"며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네 일상적인 삶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특집 5면〉 신성민 기자



대행선연구원은 6월 17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근현대 비구니 삶과 사상'을 주제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종합토론 모습.

대한불교진흥원, 하반기 4대 공모사업 실시

제20회 대원상 상금 증액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교의 현대화 · 대중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2003년 제정해 매년 시상하는 '제20회 대원상'을 비롯해 청년불교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제7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학술 · 콘텐츠 연구 개발을 돕는 '제8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풀뿌리 불교 중흥을 위한 '제7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이다. 특히 대원상은 상금을 대폭 상향하며, 해외서 유학하는 조계종 스님 2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특별 정진상'을 새롭게 선보인다.

제20회 대원상은 대상 상금만 지난해보다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별상 1500만원, 장려상 1000만원, 신설된 특별 정진상(2명) 각 1000만원으로 모든 상금이 확대됐다.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아래 사회활동, 강연 및 설법, 콘텐츠 제작, 저술 등 포교에 앞장선 출가자와 재가자, 단체를 시상한다.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진흥원에 접수해야 한다.

제7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은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장학금 및 활동비를 지원하며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300만원이 주어진다. 또 각 동아리별로 초등부 50만원, 중고등부 150만원, 대학생 및 대학원생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제7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은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하며 기관 · 단체별로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제8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는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교 학술부문은 저서 500만원에서 1200만원, 번역서 3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며, 만화 · 동화 · 다큐멘터리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 콘텐츠 부분도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원상을 제외한 공모사업은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윤호섭 기자

종교편향특위, 대구시청 항의 방문

6월 19일, 김종환 부시장 면담
"자문위 폐지 부당" 강력 항의

대구시립합창단의 종교편향 공연을 방지하고자 설치된 '종교화합자문위원회(자문위)'가 대구시의 결정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이하 특별위)가 대구시청을 찾아 자문위 존치를 강력 요구했다.

특별위는 6월 19일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에서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면담했다. 선광 스님은 먼저 홍준표 시장의 "사전검열은 위헌적"이라는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는 대구시가 종교편향 예방을 위해 만든 제도"라면서 "1년 반 만에 시장이 성급하게 자문위원회 폐지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자문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무조건 폐지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종한 부시장은 "향후 종교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해촉, 파면 등 징계 조치하려 한다"면서 "사전 검열적 제도보다는 내부적으로 교육이나 강력 제재를 강화하고 스스로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장치로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보란 문화예술정책과장이 "종교중립의무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조례상 종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징계자 해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설해 스님은 "사전검열이 문제 된다면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 폐지는 성급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종교편향특위는 면담 후 김종한 부시장에게 불교계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대구시는 6월 20일 자문위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30일에는 본 심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종교편향특위는 빠른 시일 내 홍준표 시장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면담에는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 종회의원 응관 스님, 설해 스님, 총무원 사회국장 현우 스님, 김나연 소리바라밀연구소장,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황보란 문화예술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만암 종헌대종사의
역사적 위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일시
불기 2567년(2023) 6월 29일(목) 오후 1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조계사 내) 국제회의장

주제
만암 종헌대종사의 생애와 역사적 위상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전화 061-392-7502
www.baekyangsa.com

개회
-. 인사말씀(무공스님, 백양사 주지)
-. 치사(진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제1부 주제 발표 : 만암의 생애와 사상
좌장 : 미산스님(상도선원 회주)
-. 제1주제 발표 : 금강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만암 대종사의 수증과 불교사상」
토론 : 만당스님(불갑사 주지)
-. 제2주제 발표 : 김상영(前 중앙승가대 교수)
「만암 종헌의 생애와 활동-1928년 이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 : 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제2부 주제 발표 : 만암의 불교정화와 교육활동
-. 제3주제 발표 : 김광식(前 동국대 특임교수)
「만암 불교정화의 재인식」
토론 : 이재수(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제4주제 발표 : 황인규(동국대 교수)
「만암의 교육활동과 의의」
토론 : 김덕진(광주교육대 교수)
-. 제5주제 발표 : 이재형(법보신문 편집국장)
「만암대종사의 행장과 관계된 몇 가지 검토」
토론 : 이성수(불교신문 기자)